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서홍관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시인

가을 바람이 불면
서울해는 유
난히도 “독감 예방
접종 맞으러 왔어
요”라고 하는 사람
들이 늘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독감
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한 가지는 그저 감기를
심하게 걸렸을 때 이를 독감이라고 부
른다. 또 한가지는 유행성 독감을 말하
는데 바로 이것이 인플루엔자다. 인플루
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감기와 유사하면서
도 증상은 대개 더 심하기 때문에 유행
성독감이라고 부른다.

인플루엔자는 그렇다면 왜 중요한가?
간단히 말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중요하
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열과 두통이
심하고, 온몸이 얻어 맞은 것처럼 쭈시
고, 몸이 피곤해지고 결국에는 직장이나
학교에 나갈 수 없게 된다. 또한 폐렴이
합병증으로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때로는 생명을 잃게도 하는 무서
운 병이다. 역사상 가장 심했던 유행은

1918년에 유럽을 강
타해서 세계적으로
약 2천만명이 사망
했던 사건이다.

그러나 겁날 것은
없다. 감기와 달리
인플루엔자는 예방
접종을 맞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접종을 했
다고 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되겠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맞으면
되고 해마다 다시 맞아야 한다.

작년 겨울에는 TV나 신문에서 유난
스럽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널리 선
전한 덕에 10월 중순이 되자 제약회사
에서 만든 예방접종약이 품질이 되어서
맞아야 할 사람들조차 못 맞는 어처구
니 없는 현상이 벌어졌다. 올해도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질 기미가 엿보인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절대적으로
권장하는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노인,
의사의 진찰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폐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기타 만성질환으로 병원에 있는 사람들

흔히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감기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감기를 예방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인플루엔자라는 유행성 독감만 예방한다.

이다.

또한 당뇨병, 신부전, 빈혈, 면역억제 요법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맞아야 하고, 그밖의 사람들도 접종을 하게 되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더라도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을 맞아두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더라도 걸리지 않거나 혹시 걸리더라도 심하지 않게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9월이나 10월경에 맞도록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경우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방법이 있다. 바로 아만타딘이나 리만타딘을 먹는 것이다. 아만타딘과 리만타딘은 인플루엔자 A에 의해서 감염된 세포에서 바이러스 복제를 방해해서 인플루엔자를 예방한다. 아만타딘과 리만타딘이 인플루엔자 A에 대해서 얼마나 예방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예방효과는 55-80%였다.

심지어는 아만타딘과 리만타딘은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효과도 있음이 입증되었

다. 즉 인플루엔자에 걸린 뒤 24-7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한결 증상이 가벼워진다. 폐렴에 대해서도 예방효과가 보고 되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아만타딘이나 리만타딘을 즉각 복용하기 시작해야 한다. 복용방법은 먹는 약으로 100-200mg을 하루에 두 번 복용한다. 예방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매일 위험 기간 동안 계속 먹어야 한다. 치료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7일을 복용한다. 대개 큰 부작용은 5-10%의 복용자가 어지러움증, 불안증, 불면증, 집중력 장애 등을 호소한다. 하지만 약을 끊으면 곧 소실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는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흔히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감기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감기를 예방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인플루엔자라는 유행성독감만 예방한다. 마찬가지로 아만타딘과 리만타딘도 감기가 유행할 때 먹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인플루엔자 A형이 유행할 때 먹어야 한다. †